



폭이 좁은 도로 양쪽에 오랜 수령을 가진 벚나무들이 늘어서 아름다운 벚꽃터널을 연출하는 '정읍벚꽃길'. <정읍시 제공>

주말엔 정읍 천변에서 '벚꽃 엔딩'

벚꽃축제 31일~4월 4일... 어린이축구장 특설무대에서 개막식 가수·명창·비보이 크루 공연... 떡·차·면·술 체험 등 다채

'아름다운 벚꽃 터널'이 장관을 이루며 전국적으로도 벚꽃명소로 이름난 정읍, 천변 벚꽃의 만개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읍시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올해 벚꽃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정읍시는 올해 벚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2023 정읍 벚꽃축제'를 평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4월4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막식은 4월1일 오후 7시 천변 어린이축구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고 알렸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행사로 열리는 축제인 만큼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 많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야간

경관조명, 포토존, 축제조형물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 마련에 힘썼다.

우선 개막식에서는 정읍시 홍보대사인 가수 김태연·방서희 양을 비롯해 문희욱·정주·조연비 씨 등이 나와 축하공연을 펼치고 전북 무형문화재 송재영 명창과 비보이 크루 등의 색다른 공연도 만나 볼 수 있다.

또 지역 주민들과 화합을 도모하는 '떡 모자이크 이벤트'를 비롯해 정읍의 특산품인 떡·차·면·술 체험 등 정읍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축제장 곳곳에는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푸드트럭과 음식점, 농·특산물 먹거리장터

등 35개의 부스도 운영된다.

이와함께 응동면이 고향인 국가무형문화재 김대균 명인의 줄타기 공연과 시립 국악단·농악단의 축하공연,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제27회 정읍예술제 등의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7080 레트로"와 화려한 벚꽃을 상공에서 볼 수 있는 '벚꽃하늘 열기구', 어린이들을 위한 '벚꽃대이싱 범퍼카' 등의 체험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시는 축제기간 샘갈다리에서 정주교까지 0.8km 구간과 초산교부터 달하다리까지 0.4k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하수 정읍시장은 "4년 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 많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축제장에서 설렘 가득한 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남원 하수도 요금 한시적 감면

6개월간 지난해 요금체제로...물가상승 따른 가계 부담 완화

남원시가 올 초 올린 하수도 요금의 인상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남원시는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하수도 요금 인상분을 3월부터 8월까지 감면, 인상 전 금액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낮은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3년 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왔다. 올 1월부터는 가정용 기준 하수도 요금이 평

464원에서 543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가파르게 오른 물가, 공공요금 등에 따라 시민 부담이 가중됐고 시는 지난해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1월 인상된 하수도 요금을 6개월 간 감면키로 결정했다.

1·2월 요금은 감면 결정 이전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이 2022년 수준으로 감면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기반 구축

3년간 9억원 투입 지원센터 조성...영상 장비·컨설팅 등 지원

고창군이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고창농협조합공동법인·황토배기유통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온라인 농식품 직거래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온라인직거래지원센터' 조성 등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온라인 직거래에 필요한 장비, 컨설팅, 홍보, 고객관리, 운송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고창군은 그간 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고창농협조합공동법인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고창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황토배기유통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다.

송진의 황토배기유통 대표는 "앞으로 황토배기유통은 오프라인 유통에 머물지 않고, 고창마켓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채널 활성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로 도약하겠다"며 "최종적으로 고창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읍성 성곽 돌고 극락왕생 기원하세요~



고창읍성의 봄 풍경.

윤달 맞아 방문객 급증

"윤달에 극락세계의 문이 열린다."

윤달을 맞아 고창읍성으로 성밖길을 위한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은 윤달(3월22일~4월19일)을 맞아 지난 주말 고창읍성을 찾은 내외지 방문객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고창읍성에서는 예부터 돌이나 곡식을 머리에 이고 성을 밟고 도는 답성놀이를 해왔다.

특히 윤달의 답성놀이와 관련해서는 "한 바퀴를 돌면 다릿병이 나고,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를 돌면 사후에 극락왕생 한다"는 전설

이 전해지고 있다.

윤달 중에서도 옛날날이 효험이 더 좋다고 전한다. 이 때문에 옛날날인 지난 27일 방문객의 발길이 급증했고, 열일새날인 4월 6일과 스무일새날인 4월16일에는 고창읍성을 찾아 답성놀이에 나서는 방문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때인 1453년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축조된 성으로 국내에서는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읍성 중 하나이다.

축성 당시 호남지역의 19개 군현이 참여해 축성한 성으로 왜침을 막기 위한 우리 민족의 단결을 상징하는 성이기도 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가입비 없는 정읍형 배달앱 이용하세요

'위메프 오' 가맹점 모집...수수료 2% 5월1일부터 운영

정읍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정읍형 공공 배달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읍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를 대폭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공공 배달앱 '위메프 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에 앞서 시는 최근 ㈜위메프 오(대표 이재욱)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 배달앱 사업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위메프 오'는 가맹점 중개수수료율이 2%로 6~15%대에 이르는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하고, 가입비 없이 입점할 수 있어 가맹점들의 경영 부담에 도움을 준다.

특히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해 결제할 때는 카드수수료와 달리 결제(PG)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가입 소비자에게는 정읍사랑 상품권을 결제 수단과 연계해 10% 할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

며, 구매금액의 1%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주문 할인과 특정요일 할인 쿠폰, 배달비 할인 등 각종 이벤트와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위메프 오'는 오는 5월1일 서비스 오픈 예정이며,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점주들은 인터넷 '위메프 오 파트너스'를 검색해 입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공 배달앱 사업이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착한 소비를 통해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